

홍화 이랑에 벗짚·왕겨 피복 잡초 발생률 90%까지 줄여 일정 토양수분 유지 생육조건도 향상

홍화재배때 일손을 크게 줄일수 있는 잡초방제법이 체계화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은 홍화재배때 연간 3~4차례 손으로 뽑아 방제하던 잡초를 짚이나 왕겨 등으로 피복해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화 했다고 밝혔다.

의성약초시험장에 따르면 잡초방제를 위해선 이랑을 만들여 3월 하순에 흑색비닐로 멀칭하고 홍화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5월 상순에 이랑과 이랑사이에 있는 잡초를 손으

로 뽑은 뒤 왕겨나 벗짚으로 이랑사이를 피복해 잡초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의성약초시험장은 이같이 이랑사이를 피복한 뒤 60일째인 7월 10일께 1m²당 잡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짚은 55g, 왕겨는 38g으로 잡초를 방치했을 때의 377g 보다 86~90%까지, 2차례 손으로 잡초를 제거했을 때의 232g 보다도 76~84% 줄였다. 특히 10a(300평)당 수량은 짚피복 180kg, 왕겨피복 186kg으로 손으로 2차례 잡초를 제거했을 때의 153kg보다 18~22%

늘었다. 이는 짚이나 왕겨에 잡초의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다 토양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홍화의 생육조건은 좋게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세종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 농업연구사는 “홍화는 주로 약으로 이용되고 있어 제초제를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시기를 놓쳤더라도 이같이 왕겨나 짚으로 피복해 잡초를 방제하면 일손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홍화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576-832-9669)

재배기술 상담

백하수오 재배적지와 재배법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백하수오라는 약초의 재배적지와 재배법을 알려주십시오.

백하수오는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알맞은 토양은 토심이 깊고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서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나 양토가 좋습니다. 물빠짐이 나쁘면 덩이뿌리가 썩기 쉽고 토심이 낮으면 덩이뿌리의 뻗음이 좋지 않으므로 배수가 잘되는 땅에 재배해야 합니다. 번식은 덩이뿌리를 잘라 정식하는 영양(절편)번식과 종자를 직파하거나 육묘 이식하는 종자번식 방법이 있습니다. 파종 및 정식에 적합한 시기는 4월 상순

입니다.

영양번식은 덩이뿌리를 5~7cm길이로 잘라 다이센엠 45나 벤레이트-티를 상처부위에 묻혀 군의 침입을 방지하고, 50cm의 이랑 너비에 포기사이를 10cm로 해 1절편씩 3cm깊이로 정식합니다. 종자직파 재배는 너비 50cm의 이랑을 만들고 10cm간격으로 3~5일씩 파종합니다. 파종전에는 베노람 수화제 300배액에 5~12시간 담근 후 건져내 그늘에 말리거나 베노람으로 분의처리해 파종합니다. 싹이 20cm정도 자랐을 때 건실하게 자란 1주만 남기고 속아주기 바랍니다. 육묘 이식 재배시 묘상 설치는 10a(300평)당 퇴비 2000kg, 질소8kg, 인산4kg, 칼리4kg을 뿌린후 경운,

정지하고 120cm폭의 묘판을 만들어 10cm 간격으로 줄뿌림합니다. 그런 다음 잘 썩은 부엽토와 흙을 1:1로 섞어 체로 쳐 복토한 후 물을 충분히 줘 수분유지가 잘되도록 해야 균일하게 발아됩니다. 10a당 묘판면적은 33m²정도 소요되며 1년간 육묘한 후 뿌리를 캐내 정식하면 됩니다. 정식할 때는 50cm의 이랑 너비에 포기사이를 10cm로 1포기씩 심습니다.

어릴때 2회정도 제초하면 그후에는 백하수오가 자라 잡초발생이 억제됩니다. 초장이 20cm정도 자라면 덩굴을 옮겨줘야 합니다. 수확은 정식후 2~3년째 되는 10~11월이나 다음해 3~4월에 합니다. 수확한 덩이뿌리는 물로 씻고 대칼로 걸껍질을 벗긴 후 건조사립니다.

유흥섭(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0331-290-6719)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감초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5,000톤이나 되는 감초를 한약재, 식품원료 등으로 소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쓰이는 물량 전체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물시험장 약초연구진은 지난 97년부터 중국에서 감초종자를 수집하여 국내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상환경 하에서 개화 결실여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만



지난 5월 28일에 개화하는 개체를 처음 발견하였고 오늘까지는 20%이상의 개체에서 개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험장에서 보존하고 있던 유럽감초(Glyceria glabra)는 15년이나 되었는데도 그동안 단 한번도 개화한적이 없었으나 금년에 개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종자재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감초를 수지맞는 새 작물로 개발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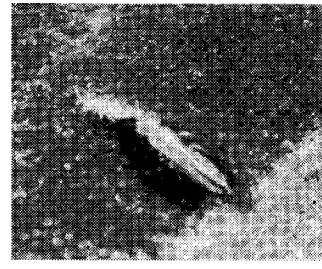
조선 세종조에 중국으로부터 감초를 도입하여 전국에 적응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감초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연구자들마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간 1,000만불의 외화절약은 물론 새로운 소득작물로,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감초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작물시험장의 약초연구발전을 채찍질해 주십시오.

〈성낙술 연구관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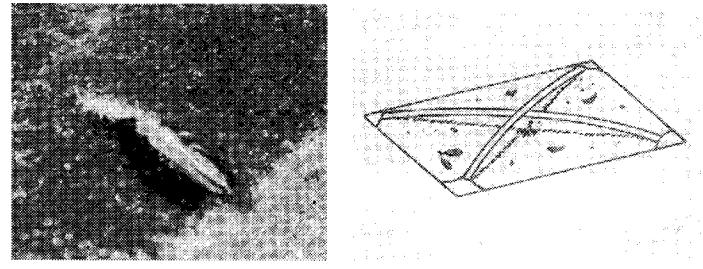
올해 구기자 병해충 조사 중 5월 17일 현재 예산일부 농가에서 꽃노랑총채벌레가 발견됐다. 아직은 발생밀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번식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채벌레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꽃노랑총채벌레
(총채벌레과, Thripidae)

• 피해: 어린잎이 축엽되고 기형화되며 어린 꽃을 가해하여 갈변 낙화시킨다. 과실도 가해하는데 피해과실은 갈색반점이 형성되고 심한 경우 과실이 썩어 떨어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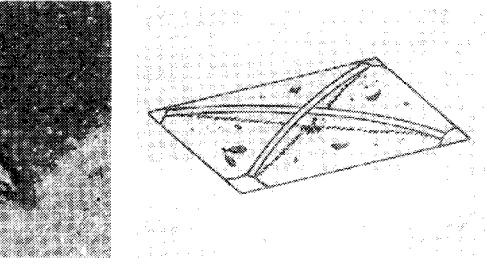


꽃노랑총채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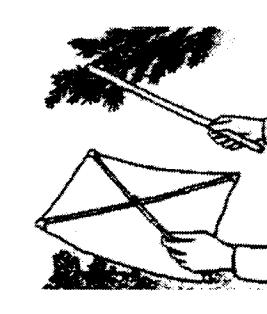
미소 곤충채집망

되며 날카로운 입으로 상처를 내고 즙액을 빨아먹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림.



채집봉법

• 형태: 암컷 성충은 1.4~1.7mm, 수컷 성충은 1.0~1.2mm로서 밝은 황색을 띠고,



암컷은 식물 조직 내에 20~40개의 알을 산란하며 27°C에서 4일만에 부화되어 유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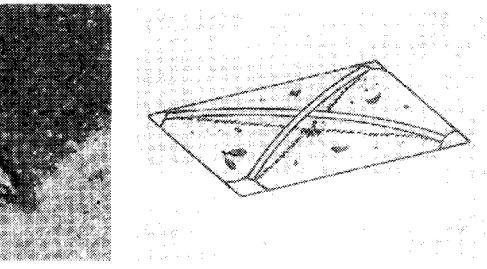
은 식물 표면에서 섭식한 뒤 토양 내에서 번데기로 되어 이른봄부터 연중 가해한다.

• 예찰및 방제방법: 미소곤충 채집망 또는 하얀 종이, 쟁반 등을 구기자나무 밑에 대고 막대로 위에서 털어 채집망 위에 떨어진 총채벌레를 확인한다. 총채벌레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약제를 살포한다. 방제시는 주위의 잡초, 들꽃등에도 함께 방제한다.

• 방제약제: 이미다를로프리드 수화제(코니도, 베테링), 스피노사드 과립수화제(부메랑), 칼탑·부프로페진 수화제(다갈), 클로르헥나피르 유제(렘페이지) 등을 방제방법에 준하여 살포.

〈자료제공: 청양구기자시험장〉

꽃노랑총채벌레 출현 비상 피해예방대책 알아두세요



미소 곤충채집망

암컷은 식물 조직 내에 20~40개의 알을 산란하며 27°C에서 4일만에 부화되어 유충